메시지 6

아가의 여섯 번째 단계 — 휴거되기를 소망함

성경: 아 8:1–7, 13–14

Ⅰ. 그리스도의 연인은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됨으로써, 육체가 있다는 것 외에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정도로 성숙된다. 그녀는 육체 때문에 탄식하는 데서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몸의 구속을 통하여 휴거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아 8:1–4, 롬 8:23, 고후 5:1–8, 엡 4:30하, 빌 3:21.

Ⅱ.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아 8:5상)

A. 이전에 혼자 힘으로 영적인 광야(세상적인 환경)에서 올라왔던(아 3:6) 그리스도의 연인은 이제 사랑하는 분께 기대어, 의지할 데 없어 그분만 신뢰하며 육체에 속한 광야(땅에 속한 영역)에서 올라온다.

1.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라는 말은 그녀가 자신이 무력하여 주님을 떠나서는 걸을 수도 없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녀는 사랑하는 분께서 지고 가셔야 하는 짐이 되었다 — 고후 12:9–10, 13:3–4.
2.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라는 말은 야곱과 같이 그녀도 엉덩이뼈가 주님에 의해 만져져서 타고난 힘이 처리받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 창 32:24–25.
3.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라는 말은 그녀가 극심한 압박에 처해 있는 듯하고 광야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 압박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고후 1:8–9.
4. 주님을 신뢰하는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성령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감탄하며 외치실 때까지, 의지할 데 없어 그분만 신뢰해야 한다.
   a. "백성들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 그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 시 62:8.
   b. "주님을 신뢰하오니 / 아침에 주님의 자애를 듣게 해 주십시오. / 주님 향하여 제 혼을 높이 드오니 /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 시 143:8.
   c.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들은 /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시온산 같아라." — 시 125:1, 시온산에 관하여 시 48:2 각주 1 참조.

B. 그녀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만나러 그분과 함께 나가고 있다(비교 마 25:1). 우리는 사랑하는 분께 기댐으로써, 세상을 뒤에 두고 '나가는' 힘이 되시는 그분을 계속 누린다(창 5:22–24, 히 11:5–6).

Ⅲ. "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 도장처럼 당신 팔에 지녀 주세요. /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 질투는 스올만큼이나 잔인하니까요. / 그 불꽃들은 이글거리는 불꽃들, / 여호와의 불길이랍니다."(아 8:6)

A. 그녀는 사랑하는 분께 그분의 사랑(마음)과 그분의 힘(팔)으로 자신을 지켜 달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요동치 않는 죽음만큼이나 강하기 때문이며, 그분의 질투는 정복할 수 없는 스올만큼이나 잔인하기 때문이다. 스올은 질투하시는 여호와와 같다. 그분은 부정적인 모든 것을 불사르는, 태워 버리는 불이시다(신 4:24).

B. "그녀는 자신의 처음 상태를 회상할 때 겸손으로 가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이 비어 있고, 자신의 체험이 헛되며, 자신의 생각이 믿을 만하지 못하고, 자신이 추구한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뿐이다. 그녀는 자신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코 자신의 인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존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온전함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당신 팔에 지녀 주세요.'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은 사랑하는 곳이고, '팔'은 힘이 있는 곳이다. '저를 도장처럼 영원히 당신의 마음에 지녀 주시고, 도장처럼 지워지지 않도록 당신의 팔에 지녀 주십시오.

제사장들이 그들의 가슴과 어깨에 이스라엘 자손을 짊어졌듯이, 당신의 마음 안에서 저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팔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약하고 비어 있다는 것을 알며 제 자신의 무력함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자신을 보존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당신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에게 해만 줄 뿐입니다. 저의 모든 소망은 당신의 사랑과 능력에 있습니다. 전에 저는 당신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랑이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저는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바라볼 뿐입니다. 저는 이전에 당신을 붙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강한 것 같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있는 힘을 다해 붙잡는 것조차도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것은 저의 붙드는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붙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당신께 더 이상 저의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제가 당신을 붙잡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은 당신의 힘과 당신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권, 노래 중의 노래, 6단락, 164-165쪽)

C. 그분의 사랑은 시련으로도 끌 수 없고, 박해로도 잠기게 할 수 없으며, 어떤 재산과도 바꿀 수 없다 — 아 8:7, 롬 8:35-39, 고전 13:1-3.

Ⅳ. 아가의 마지막 두 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촉하고 그분을 모셔 오기 위해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는 데 매우 중요하다 —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아 8:13-14)

A. 그녀는 그분을 변화된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그녀의 벗들이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주님께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라고 간청한다.

B.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오늘 당신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추구하는 이에게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비교 아 2:14)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고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데, 이것은 친밀한 상호 교통을 위한 것이다.

C. 우리의 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우리의 일은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의 연인인 우리는 사랑하는 분이신 그분을 위해 일할 때 항상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과의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D. 우리의 기도의 중심적인 요점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 계 2:7, 사 50:4-5, 출 21:6.

E.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계시나 빛이나 지식도 없을 것이다. 믿는 이들의 생활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에 달려 있다.

F. 따라서 우리가 사무엘과 마리아처럼 듣는 이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삼상 3:10)라고 말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눅 10:39).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렇게 부르신다 —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계 2:7상)

G. 주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관해 말하는 아가 8장 13절과 14절은 내재적으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와 연관된다. 에베소서의 이 절들은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요약해 준다.

1. 에베소서 5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곧 우리를 사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 절은 그리스도께서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신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계시한다.

2.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6절은 그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절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준비하시기 위해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심을 계시한다.
   a. 현재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고전 15:45하),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그분의 말씀 안에 체현되어 계신다(요 6:63, 엡 6:17-18, 딤후 3:16).
   b.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즉각적이고 현재적이며 살아 있는 개인적인 말씀으로서 신진대사적으로 낡은 것을 씻어 내고 새로운 것으로 대치하여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c. 우리는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 곧 그분께서 우리에게 매일 하시는 즉각적인 현재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내적이고도 신진대사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킨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러한 씻는 과정 안에 있다.
3. 에베소서 5장 27절은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자기 앞에 세우시는 신랑이심을 계시한다.
   a. 그리스도는 과거에 우리의 구속자이셨고, 현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장래에는 신랑으로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배필이자 참술람미인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다 — 아 6:13.
   b. 주름은 우리의 늙음을 상징하고, 점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상징하며, '그 같은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창조물에 속한 모든 것을 상징한다.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물은 이것들을 씻어 내어 우리를 그분의 변화된 새 창조물 곧 술람미가 되게 한다.
   c. 그분께서 매일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어,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실 수 있게 한다 —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아 8:13)

Ⅴ. 시적인 책인 아가의 결론으로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분께 부활 능력(가젤과 젊은 수사슴) 안에서 속히 오셔서 온 땅을 가득 채울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향기 그윽한 산들)을 세우시기를 기도한다 — 아 8:14, 계 11:15, 단 2:35.

A. 주님은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사도 요한의 반응은 주님께 이 말씀을 다시 기도로 읽어 드리면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계 22:20)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마지막 기도이다. 성경 전체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기도로 끝맺는다.

B. 그러한 기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연인 사이의 혼인의 사랑 안에서의 연결과 교감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연인인 요한의 기도가 성경의 결론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사랑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계시해 주는 것과 같다.

C. 사랑의 시인 아가에 따라 사랑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포이에마' 곧 하나님의 시가 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누림인 은혜를 가져온다(엡 2:10).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며 삼일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궁극적인 술람미 곧 어린양의 아내로서 그분의 영원한 단체적인 표현이 되며 그분과 우리는 영원토록 서로 절대적인 만족과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계 22:21, 19:7, 21:9).

D. "그분께서 오실 때 믿음은 사실로 바뀌고 찬양은 기도를 대신할 것이다. 사랑은 그늘 없는 온전함으로 완결될 것이고, 우리는 죄 없는 영역에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그날은 얼마나 놀라운 날이겠는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권, 노래 중의 노래, 6단락, 174쪽)

© 2026 Living Stream Ministry